

제약업계, 신약개발 자회사 성장 가속화... 수익성 향상 기대

**이문온시아 중국에 기술수출 성과
온코네티테라퓨틱스 네수파립 개발
일동제약 신약 자회사 협력 강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향후 외형 확장, 안정적인 수익성 등 기업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연구개발 자회사 이문온시아는 '국산 1호 면역항암제' 자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문온시아는 지난 2016년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테라퓨틱스가 합작해 설립한 면역항암제 전문기업으로, 유한양행은 이문온시아 지분 67%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문온시아는 체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와 대식세포를 표적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 면역관문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해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왔다. 또 중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추진해 신약 후보물질들을 상업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한다.

실제로 이문온시아는 2021년 중국 3D메디슨에 'IMC-002'의 중국내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약 5400억원 규모로 기



유한양행 본사 전경. /유한양행

술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성사시킨 전체 기술수출 28건 중 6위에 오른 사례이기도 하다.

향후 이문온시아는 IMC-002 마일스톤만으로 오는 2025년 27억원, 2026년 53억원, 2027년 57억원 등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문온시아 연간 매출도 2025년 28억원, 2026년 224억원, 2027년 250억원, 2028년 999억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문온시아는 올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주당 희망공모가액은 3000원~3600원으로, 최저가액 기준으로 총 274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제일약품의 연구개발 자회사 온코네티



자큐보정. /제일약품

테라퓨틱스의 경우, 신약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수익성까지 입증하고 있다.

온코네티테라퓨틱스는 지난해 10월 제37호 국산 신약 '자큐보정'을 발매한 후 같은 해 12월 코스닥 시장으로 진출했다. 올해는 2025년 매출 추정치를 기존 16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약 54% 상향 조정했다. 자큐보정의 첫 연간 판매 실적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영업손실은 기존 34억원에서 54억원으로 적자 폭이 31% 커졌다. 매출 상승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요인으로는 후속 파이프라인이 좁혔다.

실제로 온코네티테라퓨틱스는 자큐보정의 뒤를 이을 기업 대표 제품으로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네수파립은 파프·탄키라제 이중저

해 표적항암제다. 암세포의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기존 적응증인 췌장암, 자궁내막암에서 신규 적응증인 위암, 위식도점막부암, 유방암 등으로 연구개발 범위가 확장됐다.

일동제약그룹도 연구개발 자회사와 함께 그룹 경쟁력을 높인다. 일동제약그룹은 신약개발 자회사 아이리드 비엠에스와 유노비아, 신약 전문 특수회사 아이디언스 등을 보유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이리드비엠에스는 저분자 화합물에 중점을 둔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아이디언스는 항암 영역에 특화됐다. 유노비아는 당뇨, 비만 등을 치료하는 다양한 합성 신약에 집중한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꾸준히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마다 캐시카우를 확보하려는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한다"며 "신사업이 의약품과 신약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상적이겠지만, 신약개발은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이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업입장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재무 건전성 간의 균형 있는 전략을 추구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초음파로 스킨케어 완성"

젼 소노 테라피 릴리프 리뉴얼

아모레퍼시픽은 인공지능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에서 저자극 부스팅 디바이스 '젼 소노 테라피 릴리프'를 재단장해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젼 소노 테라피 릴리프'는 스킨케어 흡수에 특화된 제품이다. 메이크온 독자 기술인 '인피니티 소노 테크'를 탑재해 초당 300만 회 진동의 초음파가 화장품 유효 성분이 피부 속 깊이 흡수되도록 돕는다.

특히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한 3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미세 초음파와 젼스톤이 부드럽게 작용해 디바이스 입문자에게 적합한 '부스팅 모드'와 초음파와 리듬감 있는 진동이 스킨케어 흡수를 촉진하는 '마사지 모드'를 구현한다.

'릴렉스 모드'는 초음파와 진동, 흡수에 이상적인 42도 온열 기능이 더해진 것으로, 인공피부적용시험 결과에서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 투과도가 600%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높은 흡수력부터 피부 피로 완화, 얼굴 부기 제거까지 다양한 홈뷰티 기능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미서 유플라이마 상호교환성 획득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FDA 승인
상호교환성 인정 시장 접근성 확대**

셀트리온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와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 변경허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상호교환성 제도는 동일한 효능과 안전성을 가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해 처방할 수 있는 제도로, 교차처방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미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국 의료 시스템은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어, 약사의 재량 또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승인은 글로벌 임상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셀트리온은 중증도 내지 중증 판상형 건선 환자 367명을 대상으로 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동학적 동등성, 안전성의 유사성, 유효성 등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유플라이마는 최초의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20mg/0.2ml, 40mg/0.4ml, 80mg/0.8ml 총 3가지 용량으로

고농도 제품군을 구축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 공급한다.

유럽에서는 주요 국가별 맞춤형 입찰 전략을 펼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종가격 정책을 도입하는 등 판로를 다양한 유통망을 공략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플라이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최대 아달리무맙 시장인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접근성을 높여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닥터그루트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 두피용' 제품군 4종.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민감 두피건강 관리"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 두피용 출시

LG생활건강은 더마 전문 두피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에서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 두피용' 제품군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유분 과다, 비듬, 각질, 건조에 의한 가려움, 냄새 등 지루성 두피로 인한 5가지 복합 문제를 관리해 준다. 닥터그루트는 해당 제품에 특허 기술 '알.이.디 릴리프 테크놀로지'를 적용했고, 인체적용시험에서 지루성 두피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효능을 확인했다.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 두피용' 샴푸 1회 사용만으로 ▲유분 과다 ▲가려움 ▲두피 장벽 ▲수분 등의 요소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샴푸 사용 중 단 2주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됐고, 샴푸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두피 장벽이 강화됐다.

/이청하 기자

정관장, 신라면세점과 건기식 시장 확장

관광객 맞춤형 마케팅 등 협업

정관장이 신라면세점과 전략적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장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마케팅 협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은 한승규 KGC인삼공사 마케팅본부장과 김준환 호텔신라 TR부문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신제품 공동 기획 및 출시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마케팅 ▲ 해외 신규 채널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3대 허브공항인 인천, 싱가포르, 홍콩 국제공항에 동시에 입점해 국내의 1300개 이상의 다채로운 브랜드를 통해 최신 쇼핑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다.

정관장은 신라면세점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삼의 우수성을 알려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리바로젯 전환요법 유효성·안전성 입증

JW중외제약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스타틴 단일제에서 '리바로젯'으로 전환한 환자의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지난 2021년 10월 JW중외제약이 출시한 이상지질혈증 2제 복합제다. 스타틴 계열 제제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블 결합한 국내 첫 개량신약이다. 리바로젯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54% 줄이는 기전을 갖췄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동맥

경화증, 각종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져 고지혈증 진단 기준이 된다.

서울 보라매병원 심혈관센터 김상현 교수팀은 이상지질혈증 환자 7197명을 대상으로 '리바로젯' 전환 후 48주간 유효성과 안전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팀은 7197명 중 임상 초기 등록 환자 2221명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 치료제를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 6개 스타틴 단일제에서 '리바로젯'으로 전환한 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8주, 24주, 48주 시점까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